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2. 9.(목) 16:00	배포 일시	2023. 2. 9.(목)
담당 부서	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	책임자	과 장 박상희 (044-203-3920)
		담당자	사무관 계승모 (044-203-3907)

산업부 · 한난 · 집단에너지협회,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.2만원까지 상향 지원 -

- '집단에너지 상생기금'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이하 산업부)와 **한국지역난방공사**(이하 한난)는 2.9일 **기초생활수급자** 및 **차상위계층**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**추가 지원 대책**을 발표하였다.

* 난방방식 비중 : **지역난방 15.2%**, 개별난방 81.8%, 중앙난방 3%, ('20년 통계청 조사)

**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 세대(한난 : 174만, 민간 : 179만, '22년 기준)

○ 지난 1.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**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('23.1~3)으로 2배**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.

○ 이에 더하여, 취약계층을 보다 **두텁게 지원**하기 위해 **한난**은 **가스요금 지원 수준**에 맞추어 **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** 모두에게 **난방비 지원**을 **강화**하는 **추가 대책**을 마련하였다.

□ 금번 추가지원은 **한난**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**4개월**('22.12~'23.3, 이전 대비 1개월 추가)**로 확대하고, 난방비** 지원은 **최대 59.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**한다.

○ 에너지바우처를 **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**의 경우 **생계/의료급여형**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**6만원**에 **최대 53.2만원**을 **추가**로 **지원**하고, **주거/교육급여형**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**3만원**에 최대 **56.2만원**을 **추가**로 **지원** 받게 된다.

* 에너지바우처(가구당 평균 30.4만원)를 지급받는 생계/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.4만원(1인 가구 기준)을 추가로 지원받게 됨

○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**차상위계층**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**3만원**에 **56.2만원**을 **추가**로 **지원**한다.

□ 한편,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**집단에너지협회**는 가칭 '**집단에너지 상생기금(총 100억원 조성)**'을 **적극 활용**하기로 하였으며,

○ **집단에너지협회는**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**기초생활수급자** 및 **차상위계층**에 대하여 **가급적 한난 수준**으로 지원할 수 있는 **난방비 세부 지원계획**을 **2월 중**에 구체화하여 **발표**할 **예정**이다.

□ 또한, 산업부, 집단에너지협회,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**절차·방법** 등을 몰라서 **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**하기 위하여,

○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**홍보물**을 **배포**하고, **언론보도**, SNS 등을 활용하여 **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**해 나가면서 **지자체**, **유관기관(에너지공단 등)**, **아파트 관리소**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.

* 집단에너지협회에서는 '지역난방비 지원 TF' 운영(2월중 설치 예정)을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안내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